

One-Body One-Spirit MAGAZINE | [www.obos.or.kr](http://www.obos.or.kr)

한마음한몸 | 2012년 가을 | 열다섯번째이야기

 **한마음한몸** One-Body One-Spirit  
운동본부

**15**  
AUTUMN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24주년

## 영원한 초대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랑은 끊임없는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해주면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외롭고 소외되거나 배척당한 이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며,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봉헌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당부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그 사랑을 되돌려 주라는 영원한 초대입니다.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신앙의 해' 제정 자의교서 <믿음의 문> 중에서



한 마음 한 몸  
2012년 가을호  
열다섯번째이야기  
www.obos.or.kr



여는 글	02
영원한 초대	
희망의 씨앗	04
절망에서 희망으로	
Special Story	08
지구촌빈곤퇴치의 날 행사	
월드 On Air	10
케냐 기토코 까맹디 식수지원 사업	
현장에서 온 편지	12
14일간의 사랑 여정	
공간, 나누는 세상	16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생애첫기부	18
OBOS NEWS	21



표지이야기

희망을 꿈꾸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미소가 영원히길 기도합니다.

띠앗누리 13기 현지 활동 중 캄보디아 김병교 마을에서.

사진 :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신부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2년 10월 15일 통권 제15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컴 글·사진 커뮤니케이션팀 출력·인쇄 프로아트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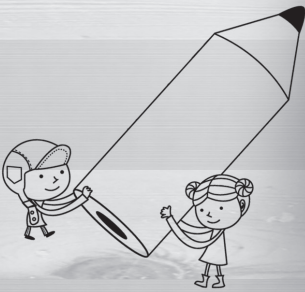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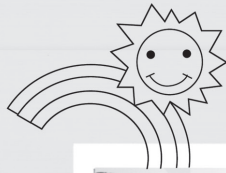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http://www.obos.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 절망에서 희망으로

매년 수많은 어린이들이 백혈병, 난치병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수술을 통해 작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어려운 형편에 오늘도 치료를 미룹니다. 그사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키우겠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장기이식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수년을 기다려 이식순서가 되어도 이식비용이 없어 이식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04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아들과 장기이식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지원 및 정서적 지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이들과 장기이식 대기자들을 위해 조금씩 모아주신 사랑의 씨앗들이 큰 기적이 되어 2012년 9월 현재까지 20명의 소중한 생명이 삶의 희망으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그 중 4명의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04

한마음  
한몸



## ● 나문(NAMUUN) (여/5세)

나문은 몽골에서 온 귀여운 소녀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한국말로 “남쪽에 있는 문”이라 설명하는 아이다운 재잘거림은 모두의 입가에 환한 웃음을 짓게 합니다. 나문이는 두 살 때 빌름스종양이 발견되어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다시 재발하여, 생각 끝에 부모님은 몽골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는 치료가 어려워 재산을 처분하고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왔지만 계속 늘어만 가는 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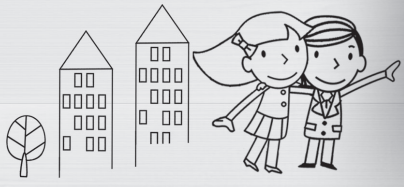
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시는 부모를 도와 통역을 해주신 나문의 삼촌은 조금이나마 이들을 돕고자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방문했을 때는 앞으로 진행될 수술 및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으로 7천만 원의 치료비가 예상돼 본부에서 지원해준 천만 원이 무색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으나, 이후 본부의 지정모금과 타 기관의 도움으로 많은 치료비가 해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삼촌 모두 본부의 도움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으며 덕분에 치료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에 본부를 찾아 고마움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치료가 잘 되어 나문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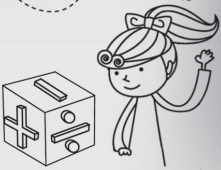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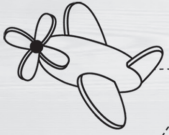


● **곽우성** (가명, 남/51세)

곽우성씨는 급성간부전으로 2012년 3월 뇌사자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곽우성씨는 과거 가족부양을 위해 화물차운전, 이삿집센터, 청소용역 등을 하며 노력하였지만 생활이 그리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지금 군인입니다. 고등학생인 딸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비를 마련하고 있는 아내는 어려운 형편에 치료비를 마련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장기이식은 뇌사자관리비용 400만원을 포함해 약 2~3천만원의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합니다. 환우 가정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던 날 곽우성씨 부부는 절망을 희망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면역 수치가 민감한 요즘, 집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고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몸 상태 때문에 힘들지만, 기증자의 아름답고 숭고한 뜻과 무엇보다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아내의 정성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노력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어렵게 꺼낼 정도로 내성적인 환우는 고마움을 짝은 인사말로 대신했습니다. 앞으로 환우가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김성우** (가명, 여/15세)

딸의 눈 수술 하나 해줄 수 없는 팍팍한 삶의 현실들이 너무 무거워 연신 울먹이시던 성우어머니와의 전화 통화 이후 한 달 반, 지원 결정 소식을 듣고 많이 기뻐했을 어머니와 성우를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성우는 밝고 수줍은 미소로 어머니와 함께 인천성모병원 사회사업실로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키도 크고... 인천성모병원 사회사업실 팀장 수녀님의 사무실이 가~득~^^; 희망도 가득~~^^

성우는 5살 때 사시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도 하고 검사도 했지만, 좋아지지 않고 시력만 더 나빠져 지금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앞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한참 신경 쓸 사춘기의 성우는 앞이 잘 안 보이는 것보다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오해와 외모에 대한 자신감 저하로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성우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수술비가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금이 마냥 미안합니다. 사시는 성형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딱한 사정에 놓여 있는 성우를 위해 본부에서 심의를 거쳐 수술비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본부의 도움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은 어머니의 눈물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로 다가옵니다. 방학을 맞이한 성우가 수술 잘 끝났다면, 이런 따뜻한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 성우를 정말 잘 키우겠다고 어머니는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 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성우의 약속도 참 예쁩니다.^^ ⊕



● **박지윤** (가명, 여/15세)

지윤이는 36주 만에 1.8kg로 태어나 7세에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3년 러셀 실버 증후군(저체중, 성장 지연 등 여러 기형을 동반하는 선천성 증후군), 저신장증 등의 진단을 받고 외래 진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신장에 따른 문제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권유 받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어 오다 2009년부터 서울대 어린이병원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아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만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 지금 치료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에 1년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고가의 치료제 비용 마련이 빠듯한 가정형편에 여간 어려운 일입니다.

지윤이는 저신장과 얼굴 기형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폭력을 당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장호르몬 치료로 키가 자라면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고 주위의 놀림도 줄었다고 합니다. 지원증서 전달이 있던 날 지윤이는 여느 사춘기 소녀들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누구인지 살짝 가르쳐줍니다.^^ 중학교 2학년인 지윤이가 난치성 질환으로 겪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 자신감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 사업에 동참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께 환자와 가족들의 감사를 대신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지구촌 빈곤 퇴치의 날

| Stand up - Take Action |

08

한마음  
한몸

**1987년** 10월17일, 프랑스 트로카데로 광장. 세계인권선언이 발표(1948년)된 장소이기에 ‘인권광장’으로도 불리는 이곳에 10만명의 시위군중이 모여 들었습니다. 평생을 빈곤퇴치운동에 바친 요셉 레신스키(Joseph Wresinski) 신부가 주도한 ‘절대빈곤퇴치운동 기념비’ 개막행사를 위해서입니다.



이 행사 이후 빈곤과 기아, 폭력의 근절 그리고 빈곤탈출만큼 중요한 인권 존중은 없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지 5년 만인 1992년, 유엔은 **매년 10월17일을 ‘지구촌 빈곤퇴치의 날’**로 정하고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배고픔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날마다 수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17일 지구촌빈곤퇴치의 날(WhiteBand Day)을 중심으로 빈곤퇴치에 관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했음에도 계속해서 빈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빈곤에 대한 문제가 광범위하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랑 실천을 핵심적인 신앙실천행위로 강조해 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은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대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교부들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69항). 또한 교황 요한바오로2세 회칙 ‘백주년’에서는 극단적인 빈곤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으며,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쓰고 남은 것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36항).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창조된 세계의 모든 재화는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의 ‘사랑 실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 새천년개발목표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우리의 목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2000년 9월 UN 본부에서 개최된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빈곤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 약속**으로 한국을 포함한 191개 UN회원국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선언한 빈곤 퇴치, 보건 및 교육 개선, 양성평등, 환경보호등 8개의 목표를 말합니다.



#### 1 절대빈곤과 기아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

전세계 약 10억 명이 하루 1 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5 모성 사망률을 줄인다.

매년 50만명의 여성이 임신출산 과정의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 2 모든 어린이에게 초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1억 1천3백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 6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퇴치한다.

위험적인 질병은 개발의 노력을 수포로 만듭니다.



#### 3 성 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한다.** 전세계 문맹 인구의 3분의 2가 여성이며, 난민의 80%가 여성입니다.



#### 7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을 이룬다.

개발도상국 인구의 반이 위생적인 화장실 없이 살아갑니다



#### 4 어린이 사망률을 줄인다.

매년 1천1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합니다.



#### 8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한다.

다양한 국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협력합니다.

### 새천년개발목표를 넘어서(Beyond MDGs)

새천년개발목표는 2000년 세계 정상들이 2015년까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에서 언급한 8가지 분야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2015년이 3년 남짓 남은 현재 이미 약속했던 8가지 목표의 기한내 달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새천년개발목표 이후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 논의에는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새천년개발목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성과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문제, 기후변화,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양극화의 심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상황 등 포괄적으로 국제사회가 지구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부도 이러한 지구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 오딩가 가족에게 큰웃음을 선사하다

## 케냐 기토코 까맹디 식수지원사업

10

한마음  
한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케냐카리타스는 오딩가가 살고있는 메루교구지역 가뭄피해 복구 및 재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로를 개간하고 빗물 수집장치 및 물탱크를 설치하여 수자원 접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가뭄에 강한 종자를 지급하고 토양과 수질관리를 위한 농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딩가가 자녀 모제스와 함께 밭을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법을 알게 된 오딩가는 농장에 관개시설을 설치하고, 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가계 소비 및 판매용으로 바나나 나무와 과일 및 야채를 더 심을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딩가(Odinga)라고 합니다. 저는 까뽀뽀(Kamwimbi) 지방의 까부루루(Kabururu) 마을에 사는 농민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고 메루교구가 시행하는 식량 및 식수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건조하여 메루교구가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을 재배 할 수 있도록 수수, 조,

콩 등의 씨앗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계속되는 가뭄이 농부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루교구의 식수와 식량지원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마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겁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 루구띠(Ruguti) 강까지 약 2.5km 를 걸어가곤 했습니


다. 저희 집의 경우, 하루에 약 20~30리터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 만큼의 물을 구하려면 한나절이 소요되니 정작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생산량은 점점 떨어 지고 모두가 굶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루교구가 루구띠 강에서 물을 끌어와 기토코 까맹디에 수로를 만들자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메루교구의 식수지원 사업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식수와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로를 개간 하고 건


물마다 빗물 수집장치와 물탱크를 설치하여 농업용수와 식수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가구들이 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 지역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땅도 이제 바나나 나무와 토마토, 수박 등을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절망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준 메루교구와 이를 지원하고 있는 케냐 카리타스 그리고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 One Body One Spirit



✻ Caritas Kenya



지원대상

5개 국립학교	4,250명 학생
2개 국립병원	240명 환자와
우물 9개	사용하는 9,000가구
농목축업	1,000가구

# 14기 17호의 시사랑여기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14기가 지난 7월 25일(수)부터 8월 8일(수)까지 14박15일의 일정으로 몽골 종돛드시 유목민 센터에서의 현지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구촌 이슈에 대한 배움터와 현지활동으로 띠앗누리 14기 단원 모두가 몽골에서 얻은 가슴속의 사랑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누어 보길 기대합니다.

12

한마음  
한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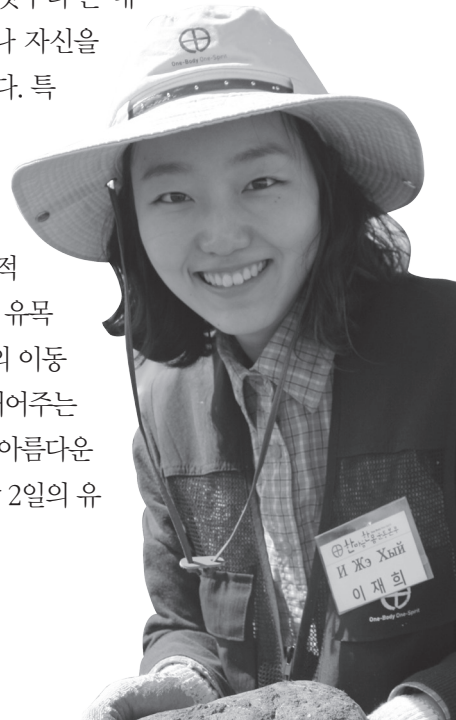
## 최고의 작품 - 내 안의 보물상자를 찾아서 -

### ● 띠앗누리 14기 이재희



졸업을 하면서 띠앗누리 활동을 결심한 나에게 어떤 이는 “국제 자원 활동? 지금은 취업 준비 해야지.” 라고 우려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띠앗누리를 선택한 것이 어찌면 일종의 도피였을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느끼는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그 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길 바랬습니다. 감사하게도 몽골에서의 활동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띠앗누리’는 내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

히, 현지활동 중에 매일 드리던 미사와 떼제는 나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는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미사 중 모두 손을 맞잡고 주님의 기도를 부르며 생김새도 언어도 다른 우리는 하나가 되는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내 생애 가장 자연친화적인 경험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유목민 가족을 만나 그들의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르(몽골족의 이동식 집) 밖의 모든 곳이 삶의 터전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드넓은 초원과 손에 닿을듯한 하늘,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현지활동 중 1박 2일의 유목민 체험은 내생애 잊을 수 없는 하루로 기억됩니다.



“어쩌면 내가 띠앗누리 14기로 다양한 사람들과 긴 일정을 함께하며, 몽골에 다녀온 것...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행 중 하나가 아닐까?” 이번 몽골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나의 인생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고민과 불안은 남아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경험이 도전하는 용기와 열정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나의 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각자의 모습을 닮은 보물상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생 동안 내 안의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나만의 보물을 찾아내는 여정, 나는 이번 경험으로 나만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각자의 보물을 찾은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띠앗누리 14기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

## 한 여름 밤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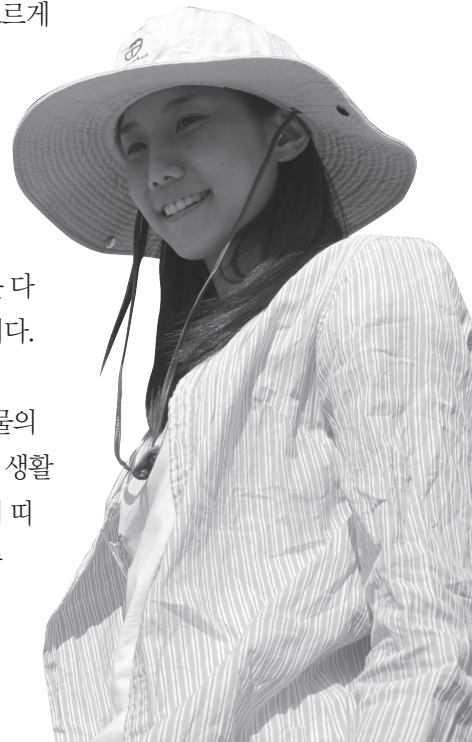
● 띠앗누리 14기 김예람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항공 KE868편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입니다...” 몽골을 떠나오던 날, 이륙을 앞두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애써 감추며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 보았습니다. 빨간색 네온사인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징기스칸 국제공항’은, 몽골에 도착하던 첫날 밤과 몽골에서의 2주를 다시금 떠오르게 했습니다.

수태차(몽골 전통차)를 권하며 양초를 들고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던 몽골친구들의 환영식, 아침체조 후 마시던 예예커피, 사랑의 센터 벽화 작업과 시멘트 작업, 게르에서의 미사와 떼제기도, 시내 탐방, 향을 성당에서의 몽골어 미사 등 이곳에 못 다 적은 여러 나날들이 영화 필름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처음, 몽골에서의 하루를 보낸 나는, 재래식 화장실, 야외 샤워장, 동물의 배설물이 널린 흙바닥 등 불편함 투성이인 유목민 센터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몽골로 떠나기 전 4번의 띠앗누리 배움터를 통해 지구상의 빈곤, 환경, 평화 등의 이슈를 주



제로 지구시민교육을 받았지만 몽골의 첫인상은 나의 상상 이상으로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하늘과 대비되는 현실은 한국에서의 풍요로운 삶에 익숙해진 나를 되돌아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빈곤’이라는 것은 그저 상대적인 부족함을 지칭할 뿐 절대적인 행복과 비례하지 않음을 몽골친구들의 모습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빈곤한 것은 내가 아니었을까? 몽골의 자연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만 바라보던 나의 정서적인 빈곤함을 풍요롭게 채워주고 또 달래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시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 속에서 나는, 날이 갈수록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고, 몽골 친구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달랐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띠앗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 14

### 한마음 한몸

한국의 일상으로 돌아오니 2주간의 몽골생활이 한 여름 밤의 기나긴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꿈이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가슴에 담고, 몽골의 초원을 바라보던 넓은 시야로 내가 아닌 우리, 더 넓게는 지구가 당면한 문제들과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거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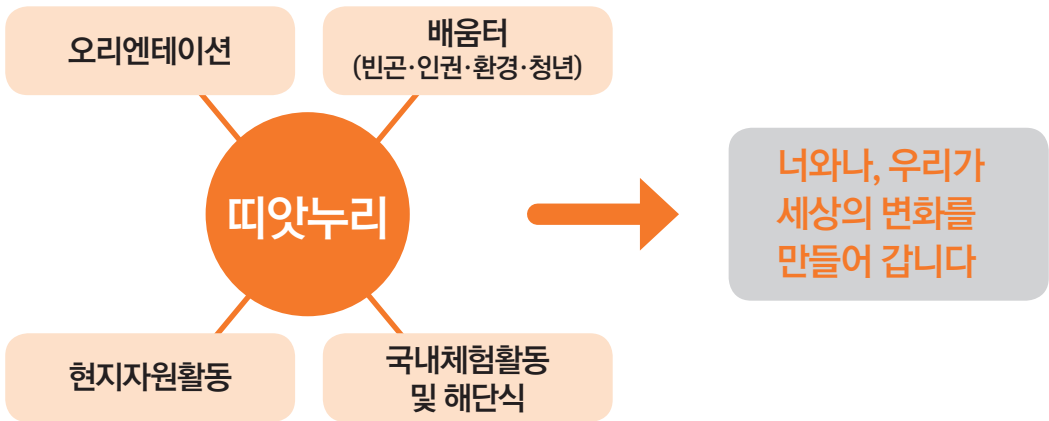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띠앗누리』 15기 모집공고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띠앗누리’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실시하는 국제청년자원활동을 넘어 1차례의 오리엔테이션과 4차례의 배움터, 현지 자원활동, 국내체험활동 및 해단식을 통해 지구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구시민교육은 지구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 사는,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빈곤, 인권, 환경, 평화 등 다양한 지구촌 공동의 이슈를 통해 지구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공통된 권리와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지구시민’,  
빈곤과 불평등, 환경 등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지구시민’,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지구 시민’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 현지자원활동

- **곳**: 캄보디아 캄땡고 마을 및 반티프리어업 장애인 기술학교
- **때**: 2013년 1월 15일(화)~1월 29일(화) 14박15일

### 접수방법

- **모집공고 및 접수**: 10월 10일(수)~11월11일(일)
- 자세한 내용은 [www.obos.or.kr](http://www.obos.or.kr) 참조

### 상세 일정

- **오리엔테이션**: 11/24(토)~25(일), 1박 2일
- **배움터**: 1차 배움터 12/22(토), 2차 배움터 12/29(토)  
3차 배움터 1/5(토), 4차 배움터 1/12(토)
- **현지활동**: 1/15(화)~1/29(화)
- **국내체험 및 해단식**: 2/5(화)~6(수)

#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계와 기업에게는 사회공헌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나눔가게·나눔기업



## 나눔 가게·나눔기업 리스트

- 1호점 서울 수색동 미성슈퍼
- 2호점 포항 득량동 손해어
- 3호점 서울 반포동 산삼감정협회
- 4호점 서울 성수동 ㈜이피코리아
- 5호점 서울 서초동 이미지넷
- 6호점 서울 필운동 ㈜계문사
- 7호점 서울 대치동 예담명가
- 8호점 인천 원창동 참사랑성물
- 9호점 서울 신도림동 정유경심리치료연구소
- 10호점 서울 수서동 ㈜우원엔비건축사사무소
- 11호점 수원 권선동 로사리오
- 12호점 서울 여의도동 명동칼국수
- 13호점 분당 서현동 소운정신과의원
- 14호점 서울 도림동 레인보우통신
- 15호점 서울 성수동 ㈜유라스텍
- 16호점 대전 도룡동 ㈜명산
- 17호점 대전 만년동 ㈜장어대가
- 18호점 서울 서교동 형광의 낙화, 눈
- 19호점 서울 수유동 토마토도시락
- 20호점 강원 평창읍 평창할인마트
- 21호점 전남 화장동 푸른농장 2호
- 22호점 전남 소라면 푸른농장 중림점
- 23호점 서울 신도림동 태영프라자약국
- 24호점 충북 청주 분평동 고리의 영어학원
- 25호점 서울 동선동 하티헤어
- 26호점 서울 개봉동 주인공 개봉센터
- 27호점 서울 고덕동 미리암약국



## 나눔가게·나눔기업 유라스텍

15호점



이선영(엘리사벳) 대표는 기업 차원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지난 2007년부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정기후원을 하고 계시답니다. 또한, 생명나눔인 '장기기증신청'과 '조혈모세포기증'희

망신청'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한 성녀 엘리사벳이란 세례명에 꼭 어울리는 따뜻한 분입니다. '유라스텍'은 '한러 기술 사업화 전문컨설팅 기업'으로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해외민간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지정 해외환자유치업자로 선정된 유럽·러시아·아시아 기술사업화 전문서비스 기업으로서 기술거래에 따른 컨설팅과 지원 시스템 개발 및 보급,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 이선영 엘리사벳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14-18

서울숲 코오롱 디지털타워 3차 705호

Tel : 02-454-9204 Fax : 02-6280-9214

[www.eurastech.com](http://www.eurastech.com)

**EURASTECH**

유럽 · 러시아 · 아시아 기술사업화 전문서비스



## 나눔가게·나눔기업 형광의 낙화, 눈

18호점



‘형광의 낙화, 눈’은 지난 2010년 손님들과 함께 동전 모으기를 통해 아이티를 위한 긴급구호에 참여하며 본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꾸준히 나눔저금통에 사랑을 적립해주시다가 나눔기업·가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해 주셨어요. 나눔가게 18호점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광의 낙화, 눈’은 수공예 주얼리 가게입니다. 방문하시면 독특한 이름 만금이나 특별한 디자인의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심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 : 나혜선 010-4692-4879

Tel : 02-333-255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29-1번지 1층



17

공간,  
나누는  
세상



## 나눔가게·나눔기업 토마토도시락

19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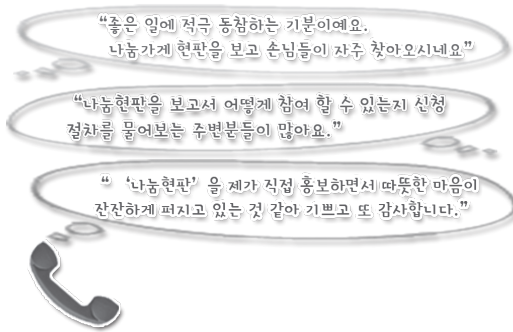
박현신(크리스티나) 사장님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계간지에 실린 ‘나눔가게·나눔기업’의 기사를 보고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박현신님은 이미 2007년 부터 본부를 통해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정기 후원을 해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장기기증희망 신청을 통해 생명 나눔까지 실천해 주시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장님이 만든 도시락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든든히 채워질 것 같습니다.

대표 : 박현신 크리스티나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2-9 1층

Tel : 011-252-1430



# 생애 첫 기부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이유찬 (2011.07.22생  
父 이석우/ 母 신진아), 75만원
- 김도겸 스테파노 (2003.01.03생  
父 김영현/ 母 나귀연), 10만원
- 김태겸 가브리엘 (2007.02.25생  
父 김영현/ 母 나귀연), 10만원
- 이재인 라우렌시오 (2011.07.29생  
父 이국희/ 母 장진희), 100만원
- 이서완 마테오 (2010.07.01생  
父 이혁승/ 母 신혜선), 20만원
- 허민준 (2011.07.05생  
父 허진호/ 母 심정리), 50만원
- 정연주 (2011.09.13생  
父 정병관/ 母 김영선), 30만원
- 이은성 (2011.08.24생 父 이태형/  
母 허서연), 1,108,240원
- 이여울 (2011.08.06생 父 이용희/  
母 남희은), 100만원
- 노현승 베네딕토 (2011.08.21생  
父 노치원/ 母 이자영), 100만원
- 조서현 베드로 (2010.06.19생  
父 조낙기/ 母 조선미), 30만원
- 김민서 마리아 (2011.07.09생  
父 김용수/ 母 김현주), 50만원
- 김민재 토마스 (2011.07.09생  
父 김용수/ 母 김현주), 50만원
- 박시완 미카엘 (2012.04.09생  
父 박상기/ 母 권민영), 10만원
- 윤준용 (2011.07.07생  
父 윤태영/ 母 박혜은), 50만원
- 정율 (2011.08.16생  
父 정순호/ 母 김수연), 100만원
- 윤정훈 안셀모 (2011.02.08생  
父 윤용덕/ 母 제민영), 30만원
- 정다연 (2011.03.12생  
父 정재환/ 母 이윤주), 100만원
- 서승민 세례자요한 (2011.06.24생  
父 서재후/ 母 신찬영), 100만원
- 이은솔 안나 (2011.07.16생  
父 이종석/ 母 정지민), 50만원
- 홍수정 마리스텔라 (2011.07.13생  
父 홍용기/ 母 조정아), 50만원
- 신윤아 소피아 (2011.07.17생  
父 신호철/ 母 조근영), 30만원
- 김승아 글라라 (2011.11.15생  
父 김용민/ 母 김경화), 100만원
- 박소원 (2012.03.05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200만원
- 박소이 (2012.03.05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200만원
- 최효담 (2012.03.28생  
父 최용천/ 母 양지혜), 10만원
- 차린 프란체스카 (2011.07.31생  
父 차민/ 母 이상희), 365,000원
- 최하영 비아 (2012.03.29생  
父 최호진/ 母 갈희선), 10만원
- 김하윤 요안나 (2011.06.07생  
父 김진만/ 母 성영실), 100만원
- 두하준 안드레아 (2011.07.21생  
父 두원균/ 母 이서형), 100만원
- 두하윤 다니엘 (2011.07.21생  
父 두원균/ 母 이서형), 100만원
- 김동하 다니엘 (2008.08.04생  
父 김중영/ 母 조익희), 100만원
- 박정현 글라라 (2011.8.10생  
父 박재범/ 母 김유림), 200만원
- 정이원 루치오 (2011.08.22생  
父 정세욱/ 母 이윤민), 100만원
- 이찬울 (2011.08.24생  
父 이완호/ 母 정세나), 10만원
- 정오름 바울라 (2010.06.29생  
父 정일호/ 母 진연희), 100만원
- 박태수 (2008.01.10생  
父 박성만/ 母 이승란), 10만원
- 이지후 (2009.08.05생  
父 이수재/ 母 염진아), 36만원
- 이강후 (2011.07.30생  
父 이수재/ 母 염진아), 12만원
- 문현 바르나바 (2011.07.27생  
父 문석빈/ 母 서주연), 100만원
- 김민주 요안나 (2004.05.07생  
父 김윤상/ 母 장은성), 248,700원
- 서강현 (2011.08.07생  
父 서완석/ 母 김지숙), 50만원
- 김민하 베로니카 (2011.07.30생  
父 김태윤/ 母 이윤지), 30만원
- 봉하연 (2004.05.30생  
父 봉재훈/ 母 손유미), 300만원
- 권승운 (2012.05.02생  
父 권구현/ 母 오성희), 50만원
- 오범석 라파엘 (2011.08.11생  
父 오세경/ 母 김민경), 50만원
- 정다인 (2011.08.08생  
父 정 옥/ 母 이현정), 50만원
- 조나는 마리스텔라 (2006.12.07생  
父 조형섭/ 母 송지령), 200만원



- 백준하 안토니오 (2011.09.05生  
父 백인호/ 母 최경심), 10만원
- 박서준 (2012.02.18生  
祖母 김영순 헬레나), 30만원
- 박서연 (2009.09.10生  
祖母 김영순 헬레나), 30만원
- 정효진 (2009.06.23生  
祖母 김영순 헬레나), 30만원
- 김민석 (2011.10.18生  
父 김정훈/ 母 서보라), 100만원
- 임주하 (2011.08.11生  
祖母 장미일 로사), 20만원
- 홍지아 그라시아 (2010.08.05生  
父 홍윤기/ 母 지아임), 20만원
- 박정원 (2011.08.17生  
父 박상중/ 母 장지영), 10만원
- 송예은 에스텔 (2009.09.03生  
父 송재욱/ 母 이혜진), 12만원
- 안태훈 (2012.05.02生  
父 안종혁/ 母 임소연), 30만원
- 박은우 (2012.05.19生  
父 박찬진/ 母 서정미), 10만원
- 정리우 마리아 (2011.04.27生  
父 김대연/ 母 정지현), 50만원
- 조호연 베르나르도  
(2007.08.20生 父 조남현/  
母 김자영), 100만원
- 노유선 베르나데트  
(2012.07.20生 父 노지형/  
母 김태연), 200만원
- 조서영 미카엘라 (1996.09.08生  
父 조 훈/ 母 송주은), 129만원
- 조형준 가브리엘 (2002.06.14生  
父 조 훈/ 母 송주은), 129만원
- 이도윤 (2010.02.23生  
父 이현상/ 母 정애란), 10만원
- 배유나 소피아 (2009.08.27生  
父 배중성/ 母 김형진), 100만원
- 나소윤 세라피나 (2010.08.10生  
父 나상오/ 母 구상희), 30만원
- 유시영 힐데가르트  
(2011.08.13生 父 유현성/  
母 차세연), 20만원
- 이준우 (2011.03.25生  
父 이주훈/ 母 류경하), 15만원
- 김예은 (2012.04.28生 父  
김남호/ 母 오혜순), 백일반지 1개
- 김민준 (2009.07.01生  
父 김용/ 母 이지은), 10만원
- 김지우 도미니코 (2011.08.31生  
父 김은한/ 母 장양원), 10만원
- 박도균 (2012.07.02生  
父 박형완/ 母 이하연/  
祖母 박영리 안나), 100만원
- 권오윤 (2011.09.13生  
父 권영호/ 母 황현지), 30만원
- 이지인 에스텔 (2011.07.13生  
父 이윤준/ 母 우혜영), 70만원
- 이승재 (2012.08.26生  
父 이민석/ 母 이안젤라), 10만원
- 연준모 (2011.08.22生  
父 연제성/ 母 이원향), 30만원
- 최은승 (2011.09.05生  
父 최종문/ 母 이화전), 100만원
- 김서우 (2012.05.25生  
父 김찬수/ 母 이하정), 20만원
- 진예원 글라라 (2012.03.09生  
父 진익훈/ 母 허연실), 30만원
- 이지우 (2011.09.05生  
父 이태근/ 母 이경화), 50만원
- 김남우 (2011.09.08生  
父 김승일/ 母 김경선), 50만원
- 장유진 (2012.03.21生  
父 장상현/ 母 김지영), 30만원
- 김예주 소피아 (2011.09.16生  
父 김현수/ 母 권소현), 100만원
- 김예윤 (2012.06.27生  
父 김주환/ 母 유효빈), 10만원
- 김성윤 (2012.06.27生  
父 김주환/ 母 유효빈), 10만원
- 반하울 (2012.07.28生  
父 반대선/ 母 유효진), 10만원
- 김연우 (2009.08.10生  
父 김재동/ 母 김주연), 100만원
- 김윤하 (2011.08.11生  
父 김숙희/ 母 유효진), 10만원
- 변도진 (2011.08.23生  
父 변기현/ 母 이두희),  
44,740만원
- 김소리 가브리엘라  
(2009.09.07生 父 김두일/  
母 김미영), 100만원
- 김예린 스텔라 (2011.09.21生  
父 김주용/ 母 임지영), 50만원
- 오윤슬 율리아 (2012.05.22生  
父 오세욱/ 母 임희아), 10만원

- 김이현 (2011.09.21생  
父 김수형/ 母 홍은정), 100만원
- 박연준 (2011.09.09생  
父 박식원/ 母 조은진), 50만원
- 김지원 스텔라 (2011.09.08생  
父 김진철/ 母 함형주), 100만원
- 최진현 프란치스코  
(2010.09.10생 父 최범수/  
母 김미숙), 10만원
- 한승우 라파엘 (2010.07.29생  
父 한상훈/ 母 김주연), 50만원
- 노채린 아녜스 (2005.09.28생  
父 노동규/ 母 박현주), 10만원
- 성시후 라파엘 (2011.09.09생  
父 성정욱/ 母 남문희),  
404,050원
- 신지민 (2011.08.03생  
父 신진호/ 母 김유정), 100만원
- 윤지후 요한보스코  
(2011.10.05생 父 윤광희/  
母 이진정), 50만원
- 황은서 (2011.09.18생  
父 황준수/ 母 김지연), 10만원
- 김준수 (2011.09.14생  
父 김인호/ 母 주아라), 5만원
- 김이언 이디아 (2011.09.17생  
父 김형근/ 母 박소은), 150만원
- 전범수 (2010.01.12생  
父 전용석/ 母 황인순), 30만원
- 권이준 (2011.11.14생  
父 권석재/ 母 김보라), 30만원
- 김태희 스텔라 (2011.09.14생  
父 김정현/ 母 손지은), 30만원
- 윤하린 (2011.11.15생  
父 윤여훈/ 母 임지혜), 100만원
- 김민재 (2008.07.06생  
父 김현수/ 母 안정주), 100만원
- 황준희 (2011.06.15생  
父 황승욱/ 母 유희영), 25만원
- 황준영 (2006.02.11생  
父 황승욱/ 母 유희영), 25만원
- 최밤또미 (2013.05.17 출산예정  
父 최동범/ 母 최이나), 100만원
- 변근호 (2011.09.14생  
父 변준석/ 母 차혜영), 100만원
- 김상희 (2006.10.03생  
父 김명수/ 母 조수연), 20만원
- 조익상 (2011.10.27생  
父 조성훈/ 母 안선희), 10만원
- 김민서 클라라 (2011.11.05생  
父 김기욱/ 母 김수진), 50만원
- 손이준 마르코 (2011.11.11생  
父 손재현/ 母 이경은), 100만원
- 이주은 (2012.07.01생  
父 이철환/ 母 김지환), 10만원
- 김해나 (2011.10.07생  
父 김선규/ 母 김민희), 20만원
- 방민우 (2011.10.03생  
父 방은호/ 母 김해정), 100만원
- 현유림 파우스티나  
(2009.08.26생 父 현준호/  
母 남희은), 30만원
- 현동훈 비오 (2011.09.28생  
父 현준호/ 母 남희은), 50만원
- 박이연 비오 (2011.10.05생  
父 박재현/ 母 박명희), 15만원
- 김범서 (2011.10.19생  
父 김영대/ 母 주현정), 100만원
- 이지안 소피아 (2012.04.04생  
父 이경섭/ 母 이하연), 50만원
- 이제나 에스텔 (2011.11.18생  
父 이길파/ 母 고은지), 100만원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계좌안내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OBOS NEWS

## 지구시민교육



국제협력팀은 지구촌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구시민 양성을 위해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7월~9월에는 압구정 중학교 및 계성여고 학생 총 350여 명을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띠앗누리 청년들로 구성된 '지구시민서포터즈'는 해당 학교의 지구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청년의 시각으로 지구촌 이슈 중 분쟁, 빈곤, 젠더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며 지구시민으로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의 : 02-727-2287)

##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14기 해단



본부의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14기가 지난 8/14(화)에 부안 에너지자립마을에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

구시민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띠앗누리 14기는 빈곤, 인권, 환경, 청년을 주제로 4차례 배움터를 거쳐 7/25(수)~8/8(수)까지, 14박 15일 간 몽골 중랴트 유목민문화센터에서 현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8/13(화)~14(수), 1박 2일 간 부안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국내체험활동 및 해단식을 끝으로 전 단원이 공식적인 모든 활동을 건강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현장방문



본부 국제협력팀은 2012년 7월에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캄보디아와 몽골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부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JSC(Jesuit Service Cambodia)와 몽골 메리워드청소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빈곤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빈곤이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2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참여**  
지난 9/11(월)~12(화), 보건복지부가

'9/10(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개최한 "2012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장 김보미 수녀가 발제자로 참여해 '가톨릭 교회와 자살예방'을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 센터는 가톨릭 교회가 지향하는 자살예방은 어떤 모습인지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제1회 safeTALK' 교육 실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함께 지난 9/19(수), 21(금) 양일에 걸쳐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2012 제1회 safeTALK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OBOS NEWS

22

한마음  
한몸

**가톨릭대 성심캠퍼스에서 자살예방캠페인 개최** “대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챙겨드립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함께 오는 9월 21일(금)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캠퍼스에서 ‘대학생 마음건강, 생명존중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본부, ‘생명나눔교육’ 활발히 진행**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는 9월13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송파구에 위치한 세륜중학교를 찾아 전교생과 함께 생명나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현수 소장이 나눔의 의미와 헌혈 및 장기기증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9월 17일(월)에는 인천 남구노인문화센터를 찾아 노

인들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죽음 준비학교>에서 장기기증 중심의 생명나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육군21사단 천지담부대 군장병들 장기기증 서약**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는 지난 8월 11일 육군 21사단 천지담부대에서 교관 및 조교, 병사 등 모두 230여명의 부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나눔교육 및 장기기증 단체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군장병들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등 장기기증 서약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을 듯지 않은 또 다른 복무라는 생각에 장기기증을 희망신청했으며, 천지담부대장은 “부대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벌여 많은 장병들이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장기기증 서약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군인의 위상을 높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교동성당, 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달** 지난 9/23(일), 서교동성당(주임 윤일선 신부) 교중미사에서 본당의 날 바자회 수익금 27,819,110원을 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서교동성당은 올해를 ‘나눔’

의 해로 설정하고 본당 사목회를 중심으로 실천하는 나눔활동을 전개하면서 제 45주년 본당의 날을 맞아 9/15(토), 16(일), ‘캄보디아 장애인 기술학교’를 돕기 위한 나눔 바자회를 열어 이 수익금을 모았습니다. 본부는 이날 전달받은 수익금을 캄보디아의 ‘반티에이 뿌리업 장애인 기술학교’에 지원하여 재봉틀, 목공기계, 장애인 휠체어, 오토바이 구매와 학교공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초동성당, 외국동전 모으기를 통해 성금 전달**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주임 임병헌 신부)에서는 지난 9월에 외국 여행이나 출장 후 버려지는 외국동전모으기를 통해 모은 동전을 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환전된 금액은 445,380원으로 이 금액은 캄보디아 프레이벵 지방 아동교육을 위해 지원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학생들이 전해온 사랑** 10/11(목)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학생 2명이 선생님과 함께 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매년 열리는 ‘꿈나무 축제’에서 직접 만든 음식과 목주, 풍선 등을 판매해 마련된 수익금 1,822,500원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전달하였습니다.



#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필수하는 곳

##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KONOS

등록번호

나는 이웃에게 세 생명을 주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이름	세례명	본당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이동전화	
정보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input type="checkbox"/> 우편물
기증형태   (중복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뇌사 시 장기기증 기증	<input type="checkbox"/> 안구(각막) 기증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이식에관한법률" 제 1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한미음용장기기증센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의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첨부서류

- ① 신청인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②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 '하루 100원 모으기'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이름(세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3,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출금일자   <input type="checkbox"/> 매일 5일 <input type="checkbox"/> 매일 20일	● 출금통장에 '한미음원'이라 표시되며, 매일 약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 연말 소득용 납입영수증 발급됩니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계좌주 주민등록번호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계좌주 | 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서명)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영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하루 100원 모기기 운동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가장 쉬운 방법

I. Do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  
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생명나눔은 진행중!

<http://www.obos3042.or.kr>

이제 '장기기증' 희망신청은 이곳에서 하세요.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3.9 ~ 2014.3.8  
서울중앙우체국  
승인4151호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207-1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

1 0 0 - 8 0 9